

밥 딜런 노벨문학상 수상에 다시 주목 받는 음유시인들

아름다운 노랫말 속 시대 고민 담겨
청년시절 밥 딜런 영향 받은 한대수
현재 진행중인 '록의 전설' 전인권
김민기·김광석 등 청춘 문화 대변도



미국 포크록 가수 밥 딜런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자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탁월한 시어로 노래하는 뮤지션에게도 이목이 쏠린다.

국내에도 한 편의 시 같은 노랫말로 소외된 삶과 세상을 향한 저항 등 시대의 고민을 담아낸 '음유시인'들이 여럿이다.

김민기, 정태춘, 한대수, 전인권과 고인이 된 김광석 등이 우선적으로 거명된다.

◇ '청년 문화의 원형' 김민기=김민기(65)는 1970년대 암울하던 시절 아름다운 노랫말로 현실을 고발하며 통기타 음악 흐름의 중심에 있었다. 그는 시인이자 화가인 밥 딜런처럼 음악가이면서도 연극 연출자로 우뚝 서는 등 여러 장르를 섭렵했다는 점에서도 닮았다.

'아침이슬'과 '그날' 등 김민기의 곡들은 꾸밈없는 목소리의 양화는 1집(1971년)을 통해 세상에 처음 나왔다. 같은 해 나온 김민기의 1집에는 '아침이슬'과 '그날'을 비롯해 '바람과 나', '그날', '길', '꽃 피우는 아이' 등이 수록됐는데 이 앨범은 당시 젊은이들이 느낀 시대의 답답함을 퓌워주는 해방구가 됐다.

그러나 1975년 긴급조치 이후 체제에 반기를 드는 곡으로 낙인 찍힌 '아침이슬'을 포함해 그의 대부분 노래는 금지곡이 됐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울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아침이슬) 이후에도 공장 생활을 하며 만들었다는 '상록수'와 김지하가 쓴 연극 '금관의 예수'에 참여하며 만든 곡인 '주여 이제는 여기에'를 비롯해 '작은 연못', '봉우

리' 등의 노랫말은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답고 아픈 시였다.

◇ '서정 시인이자 투사' 정태춘=1978년 데뷔해 초창기 정태춘(62)은 자연과 세상을 노래했다. '시인의 마음', '떠나가는 배', '사랑하는 이에게' 등 때로 부인 박은옥의 목소리가 곁들여진 그의 노래는 관조적인 서정시였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정태춘은 약자의 편에서 서서 현실을 적극적으로 대입하기 시작했다. 5집 '아, 대한민국'(1990년), 6집 '92년 장마, 종로에서'(1993년)는 그가 사회 약자를 대변하는 투사가 된 분수령이다. 이후 그는 음반 사전검열 철폐를 위해 반기를 들고, 평택 대추리에서 미군 기지 확장 반대 공연을 하는 등 '저항 가수', '문화운동 투사'라는 꼬리표를 굳혔다.

◇ '히피 문화의 선구자' 한대수='히피 문화의 선구자', '한국 최초의 싱어송라이터'로 꼽히는 한대수(68)는 미국에서 청년기를 보내며 밥 딜런의 영향을 받은 뮤지션으로 꼽힌다.

반안곡이 유행하던 1960년대 말 미국에서 건너온 그는 무교통 음악감상실 세시봉 무대에서 성대를 굽는 거친 목소리로 기타를 연주하며 자작곡인 '행복의 나라'와 '바람과 나'를 불렀다. '바람과 나'는 그의 아버지인 롱아일랜드로 건너가 2년 반가량 살던 시절의 외로움이 스민 곡이며, '물 좀 주소'도 사랑의 결핍, 사회와 부당함에 대한 노래인데 자신의 의도와 달리 정치적으로 해석된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 탓에 초기작인 1집과 2집은 1970년대 체제 전복 음악으로 낙인찍히며 금지곡이 됐다.

뮤지션이면서도 사진작가로 활동 중이며, 수려한 필력으로 여러 권의 저서를 출간했다.

◇ '록의 전설' 전인권·'영원한 가객' 김광석=1960~70년대가 청바지, 통기타로 대표된 포크의 시대였다면 1980년대는 록 음악이 꽃을 피운 시기였다.

그중 1985년은 국내 록 음악사에서 기념비적인 해로 들국화의 1집 '행진'이 세상에 나왔다. 전인권(62)의 포효하는 소리와 진취적인 기상의 노랫말은 젊은 이들의 자유가 신음하던 1980년대 민주화를 향한 분출구가 됐다. 이 앨범에서 전인권은 '행진' 한국을 만드었고 '그것만이 내 세상'과 '세게로 가는 기차' 등은 최성원과 조덕환 등 다른 멤버들이 썼다.

그러나 전인권은 솔로 싱어송라이터로도 묵직한 깊이를 드러냈다. '사랑한 후에'와 '돌고 돌고 돌고', '꽃배를 찾아서'를 비롯해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삽입곡으로 10여년 만에 재조명된 '각정말아요 그대'까지 그는 현재 진행형이다.

전인권은 "밥 딜런을 무척 좋아했다"고 수상을 축하하며 "가장 애착이 가는 '돌고 돌고 돌고'를 비롯해 내 노랫말은 인생의 허무주의가 시작점이다."

그러나 수동적인 우울함이 아니라 능동적인 가치 가 깃들었다"고 자평했다.

1996년 세상을 떠난 김광석은 앞선 선배들에 이어 1980~1990년대 청춘을 대변했다. 그는 밥 딜런의 곡 '돈't 심크 트와이스 잇즈 올 라이트'(Don't Think Twice It's All Right)를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란 제목으로 변연해 부른 인연이 있다.

/연합뉴스

“낙천적인 반복이 저랑 많이 닮았죠”

심은경, 영화 '걷기왕' 여고생 연기 화제

“너는 누구냐? 심은경이나, 반복이

냐?” 배우 심은경이 영화 '걷기왕'을 찍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다. '걷기왕' 속 한없이 낙천적이고 천하태평인 여고생 반복의 캐릭터가 심은경의 실제 모습과 오버랩되면서 주변 사람들이 헛갈려 했다는 것이다.

영화 '걷기왕'에서 10대 여고생으로 변신한 심은경을 만났다.

심은경은 '걷기왕'에서 선전적으로 말미 중후군을 타고난 10대 소녀 반복을 연기했다. 걷기가 유일한 장기인 반복은 우연히 경보리는 경쟁 세대를 접하면서 시련을 겪고 한층 성장하게 된다. 심은경은 반복의 모습이 자신의 중학교 학생 시절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연기 활동 때문에 공부를 소홀히 한다는 이야기를 듣기 싫어 열심히 수업은 듣는 것 같은데, 항상 보면 졸고 있었죠. 수업시간에 만화책도 보고, 명도 잘 때리고...무심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예요. (주변에) 신경을 잘 안 쓰는 편이예요.”

그래서인지 심은경은 이번 영화에서 “튀지 않고 꿀 흘려가듯” 자연스러운 연기를 펼쳤다.

심은경은 고교 시절을 미국에서 3년간 보냈다. 무던한 성격의 그녀지만 미국 생활은 녹록지 않았다고 한다.

“미국이라는 낯선 타지에서 서툰 영어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좌절을 많이 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하는 고민이 그때부터 시작됐죠. 원래 낮은 많이 가리는 편인데, 친구들과 어울리고 영어공부를 하면서 힘든 감정을 많이 느꼈어요.”

3년간의 미국 생활은 힘들었던 만큼

큰 자양분이 됐다. 문화와 예술의 도시인 뉴욕에서 다양한 공연 등을 관람하면서 예술적인 영감을 받았고, 그 경험은 연기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했다.

올해 23살인 심은경은 어린 나이에도 배우로서 그 누구보다 다양한 필모그래피를 쌓았다.

영화 '씨니'(736만명), '수상한 그녀'(865만명)로 최연소 흥행퀀이라는 수식어도 얻었다.

심은경은 13년 연기경력의 터닝포인트가 된 작품으로 '걷기왕'을 꼽았다. TV 드라마 '내일도 칸타빌레'(2014)와 영화 '날 기다리며'(2016)로 연달아 실패를 맛보고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영화가 찾아왔다고 한다.

“반복이처럼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어떻게 커리어를 쌓아가야 할지, 내가 연기를 좋아하는 것은 맞는 걸까, 연기를 계속해도 될까 고민하고 있을 때 '걷기왕' 시나리오를 읽었고, 반복 캐릭터가 저에게 위로를 건네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작품을 하면서 연기를 처음 했을 때의 감정과 설렘을 찾을 수 있었죠.”

심은경은 충무로에서 가장 러브콜을 많이 받는 여배우 중 한 명이다. 내년 상반기에도 '특별시민', '공황', '조작된 도시' 등 3편이 개봉을 앞두고 있다.

“사람들이 저보고 바블 같 겠다고 하는데, 매일 집에만 있어요. 느지막하게 일어나 음악 들으며 산책하고 카페에 가는 게 유일한 취미인걸요. 제 매력 많이 가리는 편인데, 친구들과 어울리고 영어공부를 하면서 힘든 감정을 많이 느꼈어요.”

3년간의 미국 생활은 힘들었던 만큼

TV 프로그램 1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결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 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00 SBS 뉴스 40 SBS 생활경제 50 KBC 생활뉴스
11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00 월화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재)	0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05 토크쇼서트 화통 55 닥터 365	00 TV블로그 꿈지락 05 토크쇼서트 화통 55 닥터 365
12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 뉴스 20 통일 전망대	00 SBS 12 뉴스 30 KBC 12뉴스 50 TV블로그 꿈지락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재) 05 KBS네트워킹특선 방송의 전설 55 별별가족	00 이웃집 찰스 (재)	1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재)	55 닥터 365
2	00 KBS순천방송국 개국 40주년 기념 특별기획 '2016 시민행복합창제'	00 KBS 뉴스타임 10 사람과 사람들	00 키즈 사이언스 6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재)
3		0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30 TV유치원	00 MBC 뉴스 10 퓌?퓌! 키즈스쿨 55 깨미합창대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2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재)	30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비타민(재)	00 MBC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 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20 2016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4차전 (넥센 VS LG)
7	00 KBS 뉴스7 35 우리말 겨루기	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 55 MBC 뉴스데스크	
8	25 별난 가족	30 글로벌24 55 재보자들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	00 월화 특별기획 <캐리어를 끄는 여자>	00 SBS뉴스 35 KBC뉴스 55 꽃놀이패
11	00 KBS 뉴스라인 40 넷워킹기획 문화산책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테마여행 길	
12	20 특집다큐 2부작 <특별한 귀환> (재)	35 비바 K리그	10 MBC 뉴스24 30 메이저리그 다이아리 45 스포츠 특선	35 나이트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9:40 부모-위대함 엄마	14:25 허풍선이 과학쇼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05:30 세계전문 아틀라스 <병화의 대여성 아이슬란드>	10:30 한국기행 (재) <고흥에 추억, 우영 견과류마을>	14:55 모피와 친구들	20:40 다크 오늘 <잠비아의 맛>
06:0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05 피터 래빗	20:50 세계테마기행 <울리안 알프스의 축복, 슬로베니아 - 발칸의 녹색정원>
06:20 세계테마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5:20 아동영웅 귀여워	21:30 한국기행 <행복의 높이 해발 700M - 날마다 천국>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 마루의 어드벤처	12:00 EBS 정오 뉴스	15:35 오솔 숲(2)	
07:30 로보카 폴리	12:10 글로벌 가족정착기 -한국에 신다	15:45 출동! 슈퍼왕스	
07:45 꼬마버스 타요	12:40 지식채널 e	16:15 방귀대장 뽕뽕이(재)	21:50 EBS 다크 프리덤
08:00 댕댕땡 유치원 1~3	12:45 EBS 스페셜 프로젝트	16:30 부릉!부릉! 부루미즈(재)	22:45 달라졌어요
08:45 부릉!부릉! 부루미즈	13:40 출근준 수확 EBS MATH	17:45 꼬마버스 타요(재)	23:35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일본 하늘다람쥐>
09:00 방귀대장 뽕뽕이	13:50 그림을 그려요(2)	18:00 생방송 퓌!퓌! 보니하니1~4	24:05 세상의 모든 범죄
09:15 출동! 슈퍼왕스	13:55 시계마을 터기탁!	19:00 강철소방대 파이어보	24:10 2016 서울인문포럼
09:30 이입! 스페이스 정글		19:30 EBS 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17일(음 9월 17일 壬申)	
子	48년생 신중하게 고려한 후에 명확히 이행해야 마땅이 없다. 60년생 방향설정을 잘 해야만 참다운 결과를 얻으리라. 72년생 선점하지 않으면 아니 되느니라. 84년생 새로운 매체를 써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행운의 숫자 : 66, 53	午	42년생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성사로 이끄는 지름길이다. 54년생 기반적인 정황에 맞춰서 진행하자. 66년생 만남의 대화 속에서 귀한 정보를 얻게 되리라. 78년생 폭넓게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익이다. 행운의 숫자 : 61, 25
丑	49년생 개별적인 고찰이 옳은 판단을 낳으리라. 61년생 우연한 행운이 상당한 기쁨을 안겨다 주는 형세다. 73년생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니 기대해도 좋다. 85년생 뜻밖의 인연을 주의해야만 발전을 기약한다. 행운의 숫자 : 01, 15	未	43년생 성과물이 생길 수도 있으나 여과하지 않으면 무뎠스러운 면이 뻐질 수 있다. 55년생 불기피하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편이 낫다. 67년생 동기 부여가 절실한 마당이다. 79년생 별것이 아니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행운의 숫자 : 52, 92
寅	50년생 체계적으로 순서를 밟아 나아가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62년생 과장은 거짓의 결과지임을 알자. 74년생 거시적 관점의 실행이 절실하다. 86년생 장고한 후에 판단해도 늦지는 않겠지만 속도감도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72, 56	申	44년생 조심해서 진행하라. 56년생 무난하게 추진되는 운로에 놓여있다. 68년생 오매불망으로 학수고대하던 것이 눈앞에 펼쳐지리라. 80년생 착실한 실행이 일한 결실을 맺게 하는 배경이 되어 줄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89, 28
卯	51년생 알면서도 모순에 빠지게 되는 어려움이 보인다. 63년생 방심한다면 호기가 약재로 변하리라. 75년생 오르막길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내리막길에 이르는 법이다. 87년생 부기가 한몸에 따르는 영광스러운 날이다. 행운의 숫자 : 97, 37	酉	45년생 계기가 마련되었을 때 기회로 삼는 것이 유리하다. 57년생 주의하지 않는다면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느니라. 69년생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쓰자. 81년생 서광이 비춰 오는 길목에 놓여 있다. 행운의 숫자 : 77, 69
辰	40년생 손질해야 할 것들이 많으리라. 52년생 내심과 표면상의 명분은 명확하게 구분하자. 64년생 바람직한 일이 생길 것이다. 76년생 외부 활동의 효과가 크겠다. 88년생 일관되게 지속한다면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0, 30	戌	46년생 입장을 바꾸어 놓고 보면 모두가 납득하리라. 58년생 과잉 반응을 보이지 말고 중용의 도를 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70년생 주변인들의 반응일랑 차치하고 주관대로 밀고 나아가자. 82년생 시도하면 기회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8, 57
巳	41년생 어느 길도 물어가지. 53년생 초기 상황을 무시하지 말라. 65년생 한 번에 끝낼 일을 여러 번 나눠서 하게 된다. 77년생 이 해하기 힘든 일이 발생하겠다. 89년생 감당하기 힘들다면 전혀 부담할 이유가 없다. 행운의 숫자 : 23, 14	亥	47년생 유기적인 관계의 설정이 요구된다. 59년생 주변인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경험을 살려서 대처한다면 무난하겠다. 71년생 거침없이 밀어붙여야 기적이 잡힐 것이다. 83년생 새로운 세계가 감겨져 있을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56, 19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